

98.4.9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신학의 사조」 7: 신정통주의(변증법적 신학)

<12 강좌> 계획 -- 어거스틴에서 포스트-모던까지

- |                 |              |               |
|-----------------|--------------|---------------|
| 1. 어거스틴         | 2. 토미즘       | 3. 종교개혁       |
| 4. 경건주의         | 5. 자유주의      | 6. 근본주의       |
| 7. <u>신정통주의</u> | 8. 실존주의(볼트만) | 9. 정치신학(몰트만)  |
| 10. 해방신학        | 11. 환경/생명신학  | 12. 포스트-모던 신학 |

I. 지난 시간의 요지: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와 그 신학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 근본주의  
<기독교의 5 가지 근본 교리>

1. 성서의 축자 영감설/무오설(The verbal inspiration of the Bible)
2.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The virgin birth of Christ)
3. 대속적 죽음(The substitutionary atonement of Christ for the sins of the world)
4.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Christ's bodily resurrection)
5. 육체적 재림(Christ's second coming) --> 예수의 기적

II.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유럽의 반응 -- 스위스 자펜빌의 목회자 Karl Barth

<배경> 근대 과학, 계몽주의 -->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

<대중적 반응> -- 유럽의 각종 “부흥회” 운동,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적 반응<

배경: 1914-1918년, 독일의 주도하에 벌어진 전쟁과 독일의 패망

1. 칼 바르트 年譜(한스 킹 자료 참조)

- |             |  |
|-------------|--|
| 1886년       | 5월 10일, 스위스 바젤 생                                   |
| 1904-08     | 신학 수업,   |
| 1911(09)-21 | 스위스 자펜빌, 산업화된 농촌에서 목회                              |
| *1919(33살)  | 사회주의 운동 단체 회의에서 강연, “로마서 강해” 출판                    |
| 1925년       | 독일에서 신학 교수직 시작                                     |
| 1932-67년    | 『교회교의학』 집필(미완성)                                    |
| 1934년       | 독일 나치스(히틀러) 등극                                     |
|             | “바르텐 선언”(하느님, 홀로 통치하신다, 다른 통치자도<br>다른 계시자/메시아도 없다) |
|             | “NO!” 에밀 브루너(동료 신학자)에게                             |
|             | 독일 대학에서 교수직 정직(히틀러)                                |
| 1935년       | 스위스에서 교수직 다시 시작                                    |
| 1948년       | WCC 창립 총회에서 기조 신학 연설(62세)                          |
| 1962년       | 미국 방문  |
| 1968년(82세)  | 12월 10일, 바젤에서 잠들다.                                 |

2. 기본 사상

1) 젊은 날, 자유주의 사상 섭렵, 목회하면서 “사회주의”에 가담(노동자 문제)  
 2) 텅빈 교회 의자, 세례 준비자들에게 대한 자유주의 신학(성서비판적 지식)이 무익함을 발견. 역사적 상대주의와 종교적 개인주의는 “설교로서는” 설득력이 없었다. 그들에게는 “신의 말씀”이 필요했다.

3) 1914년, 독일이 서방 세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자, 자유주의 신학자들, 독일 지식인들 93인이 Wilhelm II의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서 발표. 그런데 1918년, 독일 제국의 패망, 교회는 지방 군주들이 통제, (유럽은 미국이 통제)

여기서 느는 역사적 “위기”를 보았다 --> “위기신학”

“근대성의 잔인하고 야만스런” 진상과 그 종말을 보았다.

1919년 -- 인간과 신의 “질적 차이”를 역설, “신학자들의 운동장에 떨어진 원자탄”

(하르낙=“시대의 질병”이다. 한스 쾨링: “20세기의 교부”이다)

--> “변증법적 신학” --> “Between the Times”를 발간

(에밀 브루너, 프리드리히 고가르텐,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루돌프 볼트만)

“Let God Be God!” “God the Wholly Other,” “Otherness” 강조

당시 그의 신학적 과제 -- 로마 카톨릭과 “문화-개신교”(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 인간과 신의 혼동이다. 당시 기독교, “하이픈이 붙은 기독교”이다.

“analogia entis” -- 신과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 “이것 때문에 나는 결코 카톨릭이 될 수 없다!”

. 인간의 이성의 한계, “진보”라는 신화의 한계, “종교성”의 반역성을 보다.

1932년 “교회교의학”을 집필 시작

<구조> --- 1권=서술, 2권=신론, 3권=화해론, 4권=구속론(종말론, 윤리)

. 출발점은 “신의 계시” <--> 인간의 경험, 역사적 산물/표현으로서의 기독교

. 시종일관된 구조 = 삼위일체(“서술”에서 200 쪽 할애,!)

. “종교”은 인간이 만든 것, 우상 (기독교의 핵심은 “계시”)

. 1861년의 Heinrich Heppes, “The Dogmatics of the Evangelical Reformed Church”를 모형으로 삼았다!!! (한스 쾨링) ---> 신정통주의! (교리 강조!!) 신학(의 언어/방식=선포)

. 계시=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기준, 예수 밖에는 참 계시 없다.

1934년, “NO!” to “the Point of Contact”(Emil Brunner)

역사적 예수의 계시 밖에는 계시를 알 만한 접촉점이 없다.

. 기독교는 양명성을 지닌다. 역사성(역사적 비판 허용, 유용)과 초역사성(신앙의 대상, “하느님의 말씀” 선포).

. 기독교는 “공동체” <--> “기독교 교의학 개요”의 집필을 중지하다.(“교회”의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 교회 안에서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신학!!!!)

. 그리스도 중심주의, 교회중심주의!!!!

3. 그의 공헌, 그의 한계

1. 3권을 쓰면서, “신의 인간성”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 죽음 직전에는 자유주의 공헌을 인정하다. 젊어진다면, 신학을 다시 하리라!(쾨링의 말). 카톨릭, 자유주의의 도전

. 이해의 질서와 존재의 질서는 동일시될 필요가 없다! (볼트만의 도전)

. 기독교의 “독특한 메시지”에 관심

.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방식, 그래서 전근대적 방식?